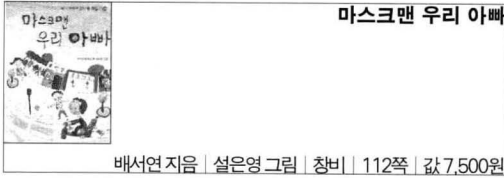


< 동 심 童 心 닮 은 어 른 들 마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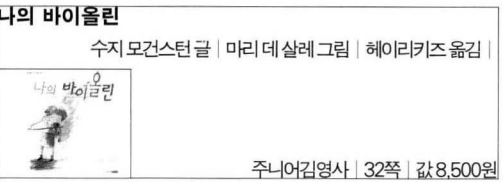
표제작인 <마스크맨 우리 아빠>를 비롯, 총 4편의 생활동화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맨 우리 아빠>와 <하느님, 잠깐만요>에는 어린이만큼 순수해 되레 아이를 감동시키는 어른들이 등장하는군요.



<마스크맨 우리 아빠>의 강재 아빠는 실직 후 일 자리를 구하다 차담는 일을 합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강재를 보면 힘이 솟는지 등고 시간마다 강재네 학교 앞을 들리시네요. 근데 강재는 아빠의 모습이 창피스럽습니다. 친구들에겐 옆집 청소부 아저씨, 빵집 아저씨라고 둘러대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웃기만 하는 아빠. 아빠는 빵소니차를 잡게 되고 아빠를 창피스럽게 여기던 강재는 고개숙여 반성합니다. 범인과 싸우느라 이가 빠진 아빠와, 앞니 빠진 강재가 함께 사진을 찍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하느님, 잠깐만요>의 할머니는 천당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입산이 섞인 순두부를 국산 순두부라고 속여 판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요. 천당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할머니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해보지만 글을 읽을 줄 몰라 당황합니다. 결국 자신이 아는 글자만이라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읽어보는 할머니. 간절한 소망을 비는 모습에서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엿보입니다. 아이들처럼 좌절하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내보이는 어른들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게 해 주는 책입니다.

<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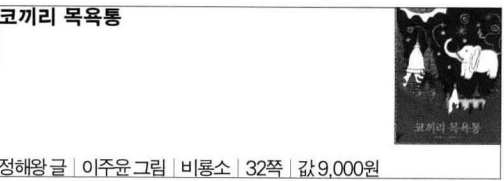


누구나 한번쯤 텔레비전에 나와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는 연예인을 동경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나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주인공은 연주회장에 갔

다가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신도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기로 하지요. 그런데 바이올린 연주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나도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 왜 내 바이올린 연주는 고양이 '미야옹' 소리만 내는 걸까요?

이야기의 절정은 죽어라고 열심히 연습을 하던 주인공이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육만이천백사십팔 미터 아래로 바이올린을 떨어뜨리고 싶은 심정. 아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주인공에게 "조금만 지나면 잘하게 되고 재미있어질거야"라고 충고합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이 어디 있었어요. 주인공은 오선지에 음표를 그리고 음악감상을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 과 한 욕 심 은 안 돼 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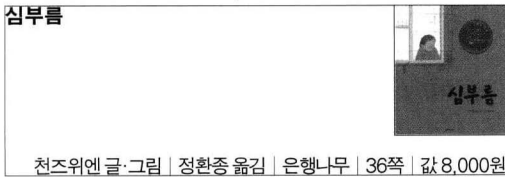


흰 코끼리에 얽힌 미안마 전통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풀어쓴 글입니다. 부족할 것 없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이 갖고 있는 흰 코끼리가 탐나 코끼리를 구할 방법을 찾습니다. 한편 그릇을 만드는 포바는 세탁소 주인 우카의 넓은 집이 탐이 납니다. 어느 날 임금은 우카에게 코끼리를 희게 세탁해 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포바는 머리를 써 우카의 힘을 빌려 넓은 목욕통을 만들어 씻겨보는 게 좋겠다고 권하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이들. 하늘은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흰 코끼리를 선물해 줍니다.

욕심 부리기 전에 내 주변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처럼 코끼리를 보내줬지만 자꾸 욕심내면 갖고 있는 것마저도 잃을지 모르니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심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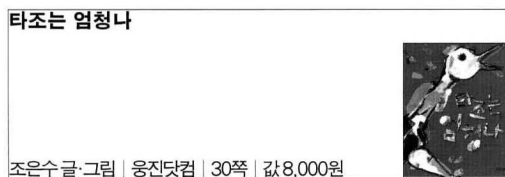
천즈위엔글·그림 | 정환중 옮김 | 은행나무 | 36쪽 | 값 8,000원

엄마가 “두부 한 모 사오렴” 말하면 “게임하는데 왜 불러?”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게임만큼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심부름길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소이네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아빠는 맛있는 달걀볶음밥을 해줄테니 계란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지요. 소이는 이제 집 밖을 나서며 재미있는 경험을 합니다. 이날 따라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놀잇거리가 많이 보이네요. 지방 위 그림자, 강아지 해리, 길에 떨어진 파란 구슬까지도 모두 놀잇감이 됩니다. 그림자밟기놀이, 강아지 흉내내기, 파란구슬 들어 세상 바라보기 등 갖가지 장난을 치며 가게 앞에 다다른 소이. 소이는 길가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쓰고 엄마 흉내를 내봅니다. 소이를 못 알아본 주인아저씨는 소이 갖다 주라며 풍선껌을 덤으로 주십니다.

건는 이의 마음에 따라 익숙한 골목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부름 가는 길. 이제 입 내밀지 말고 즐겁게 나가보세요. 생각지 못했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골판지를 이용한 일러스트가 눈에 띄니다.

타조는 엄청나



조은수글·그림 | 웅진닷컴 | 30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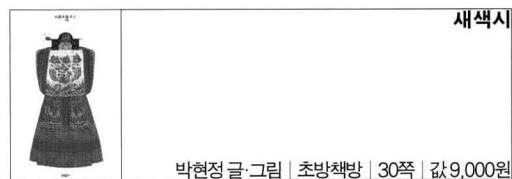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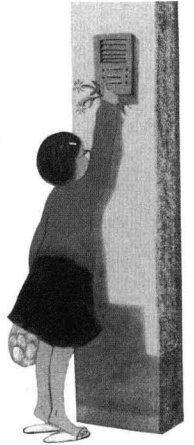
타조가 어떤 동물인지 알려주는 지식 그림책입니다. 정보도 정보지만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 못지않은 이야기가 있어 특별해 보이는군요. 작가는 생동감 넘치는 의성어를 통해 타조를 설명합니다.

“구불렁 구불렁, 호오, 마음대로 구부러지네. 불룩불룩 먹을 걸 엄청나게 모아 두네. 쭈욱쭈욱 목을 길게 빼고 바짝바짝 엉덩이를 치켜들고 날개가 스크르르 뚱구멍이 움찔움찔 났 하려는 거지?”

어린이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부분은 타조가

뚱오줌을 한꺼번에 싸는 순간입니다. 뿌지직 소리내며 뚱을 싸는 타조는 이제 ‘쑤뚱 하나 쑤뚱 둘’ 소리 내가며 알을 낳습니다. 혼자서 뚱도 잘 싸고 알도 잘 낳는 타조를 보면 타조가 왜 엄청난지 알게 될 겁니다. 책의 후반부는 “타조야 넌 왜 못 날아? 넌 왜 그렇게 목이 불룩해?”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에 대한 해답도 담겨 있습니다.

콜라주로 유명한 작가 조은수 씨의 콜라주 그림이 유난히 돋보이는 책. 신문과 한지 등을 이용해 완성한 타조그림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박현정글·그림 | 초방책방 | 30쪽 | 값 9,000원

그림인지 사진인지 분간하기 힘든 이미지들을 담은 책입니다. 버선, 한복, 비녀 등 우리 전통옷과 장신구들을 그려놓은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이 책은 전통혼례를 올리는 새색시의 옷차림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그 이름과 모양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전통옷과 장신구가 나오면 그에 맞는 소리까지 글로 표현해 읽는 재미까지 줍니다. 그럼 새색시가 어떤 순서로 옷을 입는지 슬쩍 엿볼까요?



시집가는 새색시는 먼저 무명버선 신고, 다홍치마 입고, 연두 비단 저고리를 걸칩니다. 이제 홍색비단 활옷 입고 밀화 옥 노리개 달아야지요. 그리곤 가슴 위로 공단대대 꼭꼭 여미고 머리손질을 합니다. 이젠 땀기 달고 화관을 쓰면 꽃신 신고 나올 일만 남았습니다. 연지곤지 찍은 후 가마를 타는 새색시. 새색시가 신은 무명버선은 숨을 넣어 한 땀 한 땀 곱게 누웠고, 다홍치마는 ‘사락사락’ 소리를 냅니다. 옥 노리개는 ‘달그락 달그락’ 산호 가지를 달았군요. 전통옷과 장신구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인 그림과 리듬이 느껴지는 글로 전하는 책입니다. **한글**

김청연 기자

